

노인보건			번호: IV - G - 3		
제 목	국문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 수준과 비용 분석			
	영문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Cost among Korean Elderly in the Period of Last Twelve Months of Lif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지전 <sup>1</sup> , 이상욱 <sup>2</sup> , 유승흠 <sup>3</sup> , 정혜영 <sup>4</sup> , 김정인, 이민 건강보험연구센터 <sup>1</sup>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sup>4</sup>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영문	Yi Jee Jeon <sup>1</sup> , Yi Sang Wook <sup>2</sup> , Seung Hum Yu <sup>3</sup> , Jung Hye-young <sup>4</sup> , Kim Jung In, Lee Min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sup>1</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wandong University <sup>2</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p>3</sup> ,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up>4</sup>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노인보건	발 표 자	이지전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배경 및 목적</p> <p>국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대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망자가 같은 연령군의 생존자보다 6-7배의 의료 비용을 사용하며, 사망 전 1개월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암환자의 사망 전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의료이용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사망 직전에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인구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이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전 1년 간 의료이용 수준과 비용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p> <p>2. 방법</p> <p>2001년도 하반기에 사망하고 장제비를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보험 가입지역이 서울과 경기지역인 5,677명의 의료이용 수준을 살펴보았다. 의료이용 수준은 건강보험급여자료의 총진료비, 입원비용, 외래비용, 입원일수, 외래방문횟수를 살펴보았다. 이때 의료이용수준은 사망 전 년 동안 한번이라도 의료를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대비 이용수준으로 하였다. 입원은 입원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외래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사망전 1년은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360일로 계산하였으며, 사망 전 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망일을 기준으로 30일 단위로 12개월을 계산하였다.</p>					

### 3. 결과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는 85세 이상이 1,478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80-84세가 21.5%인 1,218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75-79세는 20.0%인 1,135명이었다.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의료를 이용한 노인은 총 3,975명(70.0%)이었으며, 이들 중 남자는 1,794명(45.1%), 여자는 2,181명(54.9%)이었다. 각 연령군별 의료이용률을 살펴보면 65-69세가 79.7%으로 가장 높았으며, 70-74세, 75-79세, 80-84세가 각각 77.4%, 73.9%, 67.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85세 이상은 58.9%로 가장 낮았다. 입원이용률과 외래이용률도 의료이용률과 마찬가지로 65-69세가 각각 61.6%, 77.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사망 전 1년간 총진료비는 4,285,484원이었으며, 남자는 5,173,457원으로 3,554,668원인 여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비용은 남자가 3,991,371원이었으며, 여자가 2,707,909원이었다. 외래비용은 남자가 794,602원, 여자가 529,672원이었다.

사망자들의 사망 전 1년 간 월별 의료이용추이는 사망시점에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 1인당 총진료비의 경우, 사망 12개월에는 1개월 간 총 진료비는 152,402원(사망 전 1년 총진료비의 3.6%)이었는데, 매월 사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다가, 사망 전 3개월 전에는 448,626원(10.5%), 사망 전 1개월 동안에는 1,166,487원(27.2%)까지 증가하였다. 사망 전 비용의 월별 추이의 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의료를 이용했으며, 연령군별로는 65-69세의 노인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더 높았다.

### 4. 의의 및 고찰

사망 전 의료서비스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실제로 의료이용자들에게 사망 전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생을 마감하는 시점의 고비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며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비용절감을 시도하거나, 종말기환자에게 적합한 호스피스 및 완화의학 서비스 등 다양한 대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 전 1년 간의 의료이용수준 분석은 이러한 점에서 사망 전 의료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